



AMBOISE
CHÂTEAU ROYAL

방문 안내서



앙부아즈 왕궁의 테라스에서

테라스에 도착하면, 루와르 계곡의 경치가 파노라마같이 펼쳐진다 :

- ← 왼쪽으로, 7 개의 미덕이라는 명칭의 별관 자리에 새로운 화본 정원이 설치되어 있다 ;
- ↑ 경사로 정면에는 성-위베르 성당 ;
- 오른쪽으로, 15 그리고 16 세기 시절의 본궁 ;
- ↓ 그리고 후측에는 경사가 완만한 정원들 그리고 엄청난 크기의 웅장한 두 기마병 탑이 있다.

르네상스시대에, 군왕은 이 성을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왕궁으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예술적 활동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이 왕궁은 또한 플랑드르 그리고 이태리에서 영향받은 여러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태리는 16세기 전반부에 걸쳐 프랑스가 선망하는 나라, 또한 예술적 활기를 찬양받는 나라였다. 따라서 왕정에서는 여러 이태리 예술가, 문학가들을 앙브와즈로 초대하여 몇 십년만에 그들의 영향과 고딕 스타일의 프랑스적인 요소가 가미된 독창적인 « 초기 프랑스 르네상스 » 스타일을 창조하게 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의 왕권의 핵심이 되는 이 성은 발루와와 브루봉 왕가의 여러 왕들이 다녀가거나 거주하는 성이었다. 이 성은 또한 왕권의 여러 정치적인 행사의 현장이기도 했다 : 출생, 영세식, 왕세손 결혼식, 음모및 평화 조약. 견고한 요새가 되는 이 성은 왕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보장하였다. 정식으로 왕실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랑스 왕들의 어린 시절 양육을 위한 궁이 되기도 하였다 : 샤를르 8세가 이 성에서 태어났고, 프랑수와 1세와 그의 누이 마그리트 당굴렘과 앙리 2세와 까뜨린느 드 메디치의 자녀들이 이 성에서 자랐다.

역사의 시작부터 르네상스시대 까지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앙부와즈는 켈트 족인 투론느 (Turones) 사람들의 중심도시가 되었다. 높은 언덕바위위로 방어적인 건축물들이 지어졌고 갈로-로망 기술 장인들의 발전을 촉진하게 되었다. 기원 후 4세기에 처음으로 앙브와즈 고도시 중부에 우뚝 세워진 본관을 보호하기 위해 외호가 파졌었다. 503년도에, 프랑스의 원조 프랑크족의 왕 끌로비스와 독일의 원조 위시고의 왕 알라릭의 만남이 북벽 정면에 골드 아일랜드에서 이루어졌다. 중세기에는 앙주 백작과 블루와 백작사이의 라이벌 의식을 배경으로 이 요새 점령이 치열하게 다투어졌다. 1214년, 프랑스의 왕, 필립-오귀스트가 투렌느 지방을 장악 ; 앙브와즈 성의 영주는 그의 통치권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1431년, 영지 소유주 루이 앙브와즈는 샤를르 7세 (1403/㉠1422/†1461)의 총애를 받던 측근 라트레무이여 (La Trémouille)를 포함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는다. 결국 그는 사면을 받아 목숨은 구하나 앙브와즈 성은 몰수되어 왕가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 샤를르 7세는 성에 자유 군사대를 설치하였다. 그 뒤를 이어 계승한 루이 11세 (1423/㉠1461/†1483)는 왕비 샤를롯트 드 사부아를 위해 주탑 근처에 기도실을 꾸미게 하였다. 그리고 또한 이 성에서 나중에 샤를르 8세 (1470/㉠1483/†1498)가 되는 왕자 샤를르 주니어가 1470년도에 탄생하였다.



루이 11세



샤를르 8세 초상화



발루와 왕조의 계보

샤를르 8세 통치 초기의 프랑스 왕국

불안정한 정국

샤를르 주니어는, 아버지 루이 11세 사망시 아직 미성년이어서, 일시적으로 누이 안느 드 보저(Anne de Beaujeu)의 섭정아래 있었다. 그의 권위는 또한 사촌인 오를레앙 공작이 브러탄너 백작 (1484)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막시밀리앵 (1486)과 동맹하여 위협을 받게된다. 그리하여 프랑스 왕에 대한 «치열한 전쟁 » (1486-1488)이 시작되었다.

안느 드 브러탄녀와의 결혼 :

안느 드 브러탄녀는 브러탄너 공작 프랑수와 2세의 상속녀이었다. 공작의 영지는 합스부르크 왕가와 프랑스의 발루와 왕가사이의 경쟁에 쟁점이었다. 브러탄너 공작의 사망 (1488) 으로 프랑스 왕과의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된다. 합스부르크가의 막시밀리앵과 영지의 상속녀의 결혼을 무효화 시키고 본인 또한 오스트리아 황제의 공주 마그리트 도트리슈와 파혼하여 1491년 12 월 6일 안느 드 브러탄녀와 결혼하게된다. 이 결혼으로 인하여 1532년 브러탄너 지방의 영지를 프랑스 왕조에 공식적으로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안느는 왕궁인 앙브와즈 성에 머물게 된다. 세 명의 왕자와 한 명의 공주가 탄생하지만 모두 어린 나이에 사망한다. 이런 불행으로 인한 슬픔에도 불구하고 안느는 궁정에 본인의 스타일을 부각시킨다. 궁정에 100명 이상의 귀족 가문 출신 또는 정숙한 여성들을 그룹을 형성하여 주위에 두면서 여성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시간(Heures)이라는 유명한 채색 삽화의 저자인 투렌느 지방 출신 화가 장 부르디송, 그리고 조각가 미셀 콜롬브 같은 재능있는 예술가들을 가까이 하였다.

앙브와즈 왕의 대형 건축 프로젝트

1491년에 안느 드 브러탄녀와 결혼한 샤를르 8세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앙브와즈 성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결혼 이듬해, 중세기에 건설된 본관의 확장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성 위베르 소성당은 1493년에 완공되었고 그 후 계속 중축 공사가 이어졌다 : 7개의 미덕 명칭을 가진 남쪽 별관과 북쪽에 왕과 왕후 거처. 이태리 원정을 떠나기 전에 왕이 명령한 이 건축물들은 전형적인 고딕스타일로 이루어졌다. 1496년 왕은 여러 이태리 장인들을 동행하여 돌아온다. 이들에게 왕궁내의 실내장식과 이태리 빌라들에서 영감받은 정원 조성을 의뢰하였다. 왕의 혁신적인 건축 프로젝트는 특히 두 개의 엄청난 사이즈의 기마병 탑에서 볼 수 있다. 1498 년 샤를르 8세의 서거시, 성은 완공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5년도 채 안 걸려서 거의 대부분의 건축이 이루어졌었다.

프랑스 왕의 이태리 군사 원정과 앙브와즈에 처음으로 이태리 장인들 도착

나폴리의 왕 페랑 1세가 사망하자, 샤를르 8세는 나폴리 왕국 통치권을 주장하였다. 나폴리 왕국은 1442년도 부터 아라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공식 통치자는 프로방스의 마지막 백작 샤를르 뒤 멘느 (Charles du Maine)였는데, 샤를르 8세는 이 백작에 대한 상속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1494년 3만명의 군을 거느리고 나폴리 왕국 점령을 위해 출발하였다. 프랑스 군은 1495년 2월 나폴리에 도착하였다. 이태리와의 전쟁은 이렇게 샤를르 8세에 시작하여, 루이 12 세와 프랑수와 1세까지 나폴리 왕국 또는 밀라노 영지를 확보하기위해 계속 이어졌다. 여러 번의 승리 (가장 유명한 승리는 1515년의 마리냥 승전)와 프랑스의 점령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정은 프랑스 왕정에 결국 불리한 상황을 불러 일으켰다. 1559년 앙리 2세는 이태리 반도에 프랑스 점령 목표를 포기하는 까토-캄브레시스 (Cateau-Cambrésis)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이태리 원정을 통해서 프랑스 왕들은 이태리 르네상스에 대한 취향을 가지게 되었다. 왕들은 화가 안드레아 델 사르토 (Andrea del Sarto) 그리고 유명한 화가-엔지니어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 같은 이태리 예술가 문학가들을 앙브와즈에 초대한다.



성 위베르 성당



이 성당은 사냥의 수호 성인인 성 위베르를 기리기 위해 1493년도 루이 11세 때 지어진 옛 기도실의 기반위에 건축되었다. 이 왕실 전용 성당은 전형적인 고딕 양식이다. 또한 이 성당에는 1519년 5월 2일 세상을 떠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묘가 들어있어 더욱 유명하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의 묘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무덤

유명한 이탈리아의 장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1519년 성에 매장되는 특권을 프랑수와 1세로 부터 얻어내어 앙브와즈 성에 영원한 자취를 남기고 있다. 그는 앙브와즈 성에 1516년 64세의 나이로 도착하는데 이미 플로렌스, 밀라노, 만투, 베니스, 로마 그리고 볼로냐에서 오랜 세월 활동으로 명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는 앙브와즈에서 프랑수와 1세를 만나게 된다. 프랑수와 1세는 그에게 오늘 날 끌로 뤼세(Clos Lucé) 라고 불리는 저택 끌루(Cloux)를 제공하고 연보상금 700 에퀴(은화)로 « 국왕의 수석 화가, 엔지니어 그리고 건축가»로 임명한다. 그는 그림그리기와 운하, 도시 건설 그리고 건축 분야에 교육 담당에 전임하게 된다. 일부 역사 저자들은 로모랑탱 (Romorantin)의 도시 계획 프로젝트와 상보르 고성의 일부가 그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프랑수와 1세와 아주 가까웠던 그는 1518년 궁전 축제에 왕을 위한 많은 오락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한다.



왕궁 본관 정면의 마당과 해자

앙브와즈, 루와르 계곡의 최초 르네상스식 건축물

샤를르 8세 서거 이후, 남쪽 성벽에 기대 세워진 두 번째 기마병 탑인 으에르토 (Heurtault) 탑과 돔 파첼로 (Dom Paccello)가 조성한 정원을 둘러싸는 갤러리는 샤를르 8세를 승계한 루이 12세 (1462/㉠1498/†1515)의 통치 기간동안 완공되었다.

루이 12세가 사망한 후 프랑수와 1세 (1494/㉠1515/†1547)가 집권하게 되는 데 그는 어린 시절 앙브와즈 성에서 자란 추억을 살려 앙브와즈 시에 세제 특혜를 갱신하였고 루와르 강에 비해 수직으로 건축된 측면 별관을 높이 증축하게 한다. 벽기둥으로 장식된 별관의 천창들은 이탈리아의 영향을 확고히 표현하고 있으며 루와르 강에 평행되는 샤를르 8세의 본관의 고딕 양식의 특징인 뾰족한 첨탑 장식 천창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앙리 2세는 동쪽에 다시 별관을 건축하게 하는 데 이는 왕실 본궁의 르네상스식 별관과 평행하다. 이렇게 증축이 계속되어 성은 한 때 최대 220 칸의 방들을 가지고 있었다.

성 외호에서 생긴 비극적인 공 놀이

유명한 사가 필립 드 코민드 (Philippe de Commines) 이 비극적인 에피소드를 서술하고 있다 : 1498년 4월 7일, 샤를르 8세는 왕비 안느 드 브러탄녀와 같이 오늘 날 테니스와 유사한 저드 뽐 경기를 관람하러 성의 북에서 남으로, 7개의 미덕 건물과 왕실 본관을 연결하는 외호 (17 세기에 성토했다가 다시 19세기에 일부 파여진) 옆으로 건설된 갤러리 아끌박 (Haquelbac)로 가는 중이었다. 문의 상인방 턱에 머리를 다쳤다. 몇 시간 후 후세를 남기지 못한채 28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고딕 양식의 본궁 - 1층
근위병실, 근위병들의 초소 공간, 기동 방



고딕 양식의 본궁 - 2층
북치는 이들의 방



1. 근위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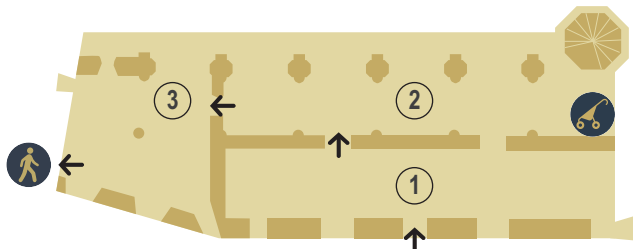
오른쪽에 있는 인터랙티브한 터미널을 이용하여 여러 세기에 걸쳐 진행되었던 성의 건축 단계들을 찾아보십시오. 비디오 영상으로 샤를르 8 세의 가장 큰 건축 업적의 실현 환경들과 오늘 날에는 없어진 7 개의 미덕이라는 이름의 별관의 풍부한 장식들과 건축학적인 미를 감상할 수 있다. 왼쪽으로, 방문 코스가 시작되는데, 뒤편 층으로의 접근을 통제하는 여러 개의 근위 담당실들이 연속적으로 있다.

2. 근위병들의 초소 공간

이 열린 공간에서 루와르 강 운항을 관찰하고 강을 감시하였다.

3. 기동 방

이 방을 통해서 궁내 종사 인원들 및 근위병들이 외호를 바라보는 성의 탑 옛 갤러리와 왕실 본관 사이를 통과하였었다. 현재로 북치는 이들의 방으로 불리는 샤를르 8세의 치장시키는 방에 연결되는 계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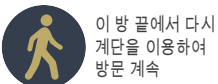
루이 11 세 (1423-1483) 는 부인과 장래 샤를르 8 세가 되는 아들이 거쳐하고 있던 성의 옛 주탑에 가끔 거주하는 첫 번째 왕이었다. 그런 거주동안, 현존하는 프랑스의 레지옹도노르 보다 훨씬 더 오래된 360 년의 역사를 가진 성-미카엘 수도회를 창립하였다. 또한 루이 11세는 루와르 계곡의 부를 상징하는 실크 공방들의 초기 설립(1470년 3월 14일)을 결정하였다. 이 방은 왕을 축제를 위해 “치장하는 방”에 해당 된다. 궁중에서는 이동을 자주 했었는데 가구들도 같이 옮겨다녔었다. “북치는 이들” (음악가들)의 방은 성에서 있었던 여러 축제 및 무도회를 연상시킨다. 이 방의 이름은 루이 14세 (1661)가 앙브와즈 성에 머무른 덕분에 주어졌다.

브러탄녀 지방 프랑스 왕국에 병합 (1532)

프랑스의 왕 샤를르 8세와 브러탄뉴의 공작 프랑스와 2세의 유일한 자손인 안느 드 브러탄녀의 결혼으로 (1491), 브러탄녀는 일단 개인적인 연결로 프랑스 왕국에 병합된다. 그러나 샤를르 8세 서거 시 (1498), 생존한 후세가 없음으로 결혼 계약상, 안느 드 브러탄녀는 사촌인, 새로운 프랑스 왕 루이 12세 (1462/1498/1515)와 의무적인 결혼을 하게 된다. 루이 12세의 후계자인 프랑수와 1세 (1494/1515/1547)는 루이 12세와 안느 드 브러탄녀 사이에 탄생한 공주 끌로드 드 프랑스 (1524)를 부인으로 맞고 또한 그녀의 아들들 프랑수와와 앙리 덕분에 브러탄녀 영지의 용익권자가 된다. 1532년, “쥬니어 백작” 프랑수와가 성년이 되자, 브러탄녀 지방 공국은 프랑스 왕국에로의 병합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안느 드 브러탄녀



이 방 끝에서 다시 계단을 이용하여 방문 계속



유모차를 초소공간 오른쪽 울타리옆에 두었다가 방문이 끝나면 찾아가십시오.



본궁 입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정원 방향 (커버 페이지에 지도 참조)의 본궁 뒷편에서 2층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오말 (Aumale) 갤러리 밑으로 경사 통로를 이용하여 2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딕 양식의 본궁 - 2층
어전 회의실



르네상스 양식의 방들 - 2층
어전 회의실

르네상스 시대에, 프랑스의 왕은 각 지방의 지방 귀족들, 장교들 그리고 카톨릭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왕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면서 왕권을 점차 강화해나가는 정책을 쓴다. 뿐만아니라, 그의 주변에 각 지방 대 귀족들이 부인들을 동반하여 몇 달씩이나 그의 성에 머물게 하였다. 이리하여 많은 여인들이 궁중 생활에 등장하게 된다. 장엄한 공식 집견과 연회들은 궁중생활의 필수적인 즐거운 행사중에 하나가 되었다. 어전 회의실은 이 궁전 축제들과 여러 행사에 적합한 가장 큰 규모의 방중의 하나이었다. 이 방은 1518년 황태자의 영세식과 교황의 조카 로랑 2세와 마들렌드 드 라투르 도베르녀의 결혼식을 위한 왕실 제들이 열렸던 궁의 안뜰 옆에 위치하고 있다. 이 결혼은 마리난 전쟁에서 승전한 프랑수와 1세와 교황청 그리고 유럽은 대표적인 왕실들, 이태리 왕실,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프랑스와 1세 (1494/D1515/1547), 프랑스 르네상스 예술의 위대한 후원자

루이 12세는 사촌이면서 미래의 왕위 계승권자인 프랑수와 당굴렘을 앙브와즈 성에 오게 한다. 프랑수와 당굴렘은 4세의 나이로 어머니 루이즈 드 사부와 와 누이 마그리트와 같이 앙브와즈에 도착한다. 1515년 왕좌에 오를 때까지 어린 시절을 이 성에서 보내게 된다. 르네상스에 심취한 그는 예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왕 자신이 프랑스의 학식가들인 뷔데 (Budé), 마로 (Marot), 뒤 블레 (du Bellay), 통사르 (Ronsard) 와 라블레 (Rabelais) 등의 후원자가 되어, 앙드레아 델 사르토 (Andrea del Sarto), 레오나르도 다 빈치 그리고 벤베누토 첼리니 (Benvenuto Cellini) 같은 이태리 예술가들이 측근에서 일하도록 배려해 준다. 그는 앙부와즈 왕궁 본관의 르네상스 별관을 높이 증축시키고 천장을 이태리 취향으로 장식하게 한다.

... 포스터 사건... 앙브와즈 모의, 종교 전쟁의 시발점

볼로냐 정교 협약 (1516)에 서명하여 프랑수와 1세는 교회에 대한 왕권의 권위를 확보한다. 그는 교회 개혁에 호의적이기는 하였지만, 이미 한창 진행중인 신학자들의 논쟁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교황의 미사 집전 남용»에 항의하는 « 포스터» 가 왕국의 큰 도사들에 그리고 또 앙브와즈 성의 왕 침실 문에 1534년 10월 17일에서 18일 밤 사이에 붙여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도전적인 사건으로 왕이 일시 허용하려고 하였던 온유한 개혁 프로세스가 중지되었다.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체포되었다. 이교도로 간주된 수십명이 산채로 화형당하였다. 1560년, 16세의 나이로 새로 즉위한 프랑수와 2세는 앙리 2세와 까트린느 드 메디치 왕비사이의 말 아들이었다. 즉위 일 년전 그는 스코트랜드의 여왕 마리스튜아르와 결혼하였다. 기이즈 가문의 마리스튜아르의 삼촌들이 실제 권력을 장악하였는데 신교도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지지하였다. 신교도들은 프랑수와 2세를 기이즈 가문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기위해 1560년 3월 27일과 29일 프랑수와 2세를 앙브와즈 성으로 납치하는 거사를 시도하였다. 이 음모자들은 결국 체포되어 대중들 앞에서 처형되었다. 음모자 몇 명은 “본보기를 위해” 성의 발코니에 매달아 처형하였다. 무기로 대응한 이 두 파의 대결은 1572년 8월 24일 유명한 성 바르텔레미 학살 사건으로 그 정점을 이룬다.

이 방은 원래 왕이 주위 사람들을 접견하는데 사용되었었다. 지금은 왕의 식탁과 연관된 가구 및 물건들의 컬렉션을 보여주고 있다. « 이태리식» 식탁이 중세기 시대의 다리있는 나무 판 식탁을 대신하고 있다. 이 식탁은 장식이 화려하고 중간에 판을 연결하여 길게 늘일 수 있게 되어있다. 창이 두 개인 포크의 사용이 조금씩 시작되어 식탁 예절이 점점 발전되었다 (앙리 3 세 까지는 나이프와 숟가락을 더 즐겨 사용하였다).



프랑수아 1세



르네상스 양식의 큰 호두나무 상자



르네상스 양식 장식 도자기 19세기

... 르네상스 양식에 원근화법의 도입.

가구 분야에서 15세기 말엽의 고딕 양식의 특징은 주름잡힌 천 장식 또는 날이 선 아치형 디자인이다. 르네상스 시대에, 눈속임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고대 원근화법이 재발견되었다. 이 기법은 가구 장식이나 태피스트리 모티브에 심도있는 입체감을 나타낸다.



르네상스 양식의 방들 - 2층 왕의 침실

이 방은 프랑수와 1세 (1494-☞1515-1547) 와 그의 아들 앙리 2세 (1519-☞1547-†1559)의 침실이였다. 이 방은 또한 앙리 2세의 왕후 까트린 드 메디치 (1519-1589)가 왕의 비극적인 사망이후 사용했는데 그녀는 여러 명의 아들의 왕실 정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었다. 이 침실의 장식은 16세기 실내장식 예술분야에 원근화법의 기교를 소개한 가장 완벽한 예라 할 수 있다.

레오나르 다 빈치, 예술의 수호신

레오나르 다 빈치는 여러 방면에 다양한 지식과 재능을 발휘하여 프랑스 왕실을 놀라게 하였다. 그는 프랑수와 1세가 « 예술과 문학의 보호자»로서의 명성을 쌓는데 확실히 기여를 하였다. 프랑수와 1세는 1518년 6월 다 빈치의 여러 초상화 작품들을 구입하였는데 그 중 유명한 « Sainte-Anne »그림은 그의 성당 중 하나에 장식되어 있다. 레오나르 다 빈치의 명성은 18세기와 19세기까지 계속 : 화가 프랑수와-기욤 메나조 (1744-1816)가 1781년 «레오나르 다 빈치의 죽음»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은 왕궁 근처에 왕이 하사한 거주지, 클로 튀세에 토스칸 출신의 위대한 레오나르 다 빈치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것을 프랑수와 1 세가 지켜보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 장면은 왕이 생-제르맹-앙-레에서 못왔기때문에 실재는 아니었지만, 피렌체 출신의 천재 다 빈치와 그를 후원한 왕의 돈독한 관계를 기리고 있다. 이 작품은 같은 해 베르사이유 궁전 내 갤러리중 하나에 장식할 태피스트리 제작을 위해 군주 루이 16세가 구입하였다. 또한 이 장면은 1818년에 다시 화가 장-오귀스트-도미니크 앙그르 (Jean-Auguste-Dominique Ingres)(1780-1867)가 훌륭하게 재현하였다. 이 그림으로 화가 메나조는 19 세기 전체에 걸쳐 명성을 떨친 트루바도르 스타일의 선구자가 되었다.

이 장면을 영감을 받은 많은 판화들이 부루조아 집들에 장식되어 이 그림의 주인공들인 왕과 다 빈치를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인물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카트린 드 메디치



앙리 2세



프랑수와-기욤 메나조가 1781년에 그린
« 레오나르 다 빈치의 죽음 » (루이 16세가
1781 년도 획득), 앙브와즈 시 박물관의
위탁품



르네상스 양식의 방들 - 2층 의상실

19세기에 개조된 이 방은 왕이나 왕후가 침실 근처에 의상들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평탄치 않은 운명의 앙브와즈 성

앙리 3 세 (1551/☞1574/†1589) 통치이후 부터는 앙브와즈 성에 왕가가 머무는 일이 점점 드물어졌다. 궁중은 앙리 4세 시대에 결정적으로 파리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여 루와르 강 계곡을 떠나게 된다 .

«17세기와 18세기에 앙브와즈 성에 머물렀던 왕들 »

(컬렉션 제외)



앙리 4세의 초상화



루이 13세



루이 14세



스페인의 필립 5세

성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 폐허가 되어가며 웅장한 모습을 잃게되었다. 성의 지하감옥과 탑들은 그래도 아직 정권의 적들 (예를 들어 1661년 니콜라 푸케)과 17세기 18세기 전쟁포로들을 위해 이용되었다. 1631년 재상 리슐리외 (Richelieu)는 루이 13세 왕에 대한 반대 세력의 성 요새화를 방지하기 위해 성 요새의 철거와 성 외호의 성토를 명령하였다.

그렇지만 17세기에 걸쳐 앙브와즈 성은 여러 왕들이 들러가는 거처로 남아 있었다 :

1598 년과 1602 년에 앙리 4세 ((1553/☞1589/†1610) 그리고 더욱 자주 1650년과 1660년에. 루이 13세 (1601/☞1610/†1643)와 루이 14세 (1638/☞1643/†1715).



갈 수 없는 계단

히스토패드를 이용하여 3 층을 VR (가상현실)으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어전 회의실 방의 경비원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경비원들은 오말 갤러리 방면의 경사로로 안내할 것입니다 (지도상에 15번, 일반 방문객 코스가 끝나서 만나는 점)



19세기 살롱 - 3층 오를레앙-뵘티에브르 업무실

1763년, 쉬아줄 (Choiseul) (1719-1785) 공작은 앙브와즈의 영주 작위를 앙브와즈의 왕 루이 15세로부터 얻어낸다. 그러나 그는 가까이 있는 샹들루 (Chanteloup) 성 (오늘 날 없어진)을 선호하여 앙브와즈 성을 소홀히 했다. 그가 죽고난 뒤, 앙브와즈 성은 루이 16세의 사촌이며 루이 14세의 정식 손자인 뵘티에브르 (Penthièvre) (1725-1793) 공작이 인수한다. 뵘티에브르 공작은 1789 년 성의 본궁을 새단장하고 정원을 새롭게 영국식으로 바꾸게 하였는데 정원의 산책로는 예전대로 굴곡진 형태를 간직하였다. «가르소네 (어린 사내아이) Garçonnet» 라고 불리는 서쪽 탑위에 18세기에 한창 유행하던 중국 스타일의 팔각형 파고다가 세워졌다.

프랑스 대혁명 시절 압수된 왕궁은 한 번의 화재를 겪었고 그 다음 나폴레옹 제 1정 시대의 집정관이었던 피에르-로제 뒤코스의 주도하에 여러 단계에 걸쳐 해체되었었다.

성의 복구되자, 뵘티에브르의 유일한 상속녀이고, «평등» 이라고 불리었던, 오를레앙 공작 루이-필립 조제프 (1747- 1793)의 미망인, 오를레앙 공작부인인, 부르봉가의 루이즈 마리-아델라이드 (1753-1821)의 소유로 넘어간다.

이 업무실에는 나중에 프랑스 왕이 되는 루이 필립 1세의 외조부모 및 부모들의 18세기 말엽의 초상화들이 걸려있다.



슈아줄 공작



뵘티에브르 공작



부르봉-오를레앙
가계도



19세기 살롱 - 3층 오를레앙 살롱

오를레앙 공작 루이-필립은 1821년 어머니 부르봉-뵘티에브르가의 루이즈-마리-아델라이드부터 성을 물려받는다. 장래 프랑스 국왕 (1773/㉮1830/㉮1850) 인 그는, 성 주변의 집 46채를 사들여 철거를 하여 성벽 근처를 보호하였다. 이 공작이 처음으로 성 위베르 성당을 복구하여 화재로 손상된 7 개의 미덕 별관을 지붕-테라스로 바꾸게하고 미닝 탑 꼭대기에 파노라마 살롱을 추가시켰다.



루이-필립, 프랑스 대중의 왕

루이-필립은 루이 14세 왕의 동생인 필립 도를레앙의 후손으로 부르봉가의 장손이다. 그는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에 망명하기이전에 초보적인 혁명 정신에 가담한다. 1830년 7월 샤를르 10세는 3일의 반란, “위대한 3일” 압력에 의해 왕위에서 물러난다. 루이-필립의 진보적인 사고 방식 그리고 대중의 전격적인 지지로 그는 왕위를 계승한다.

그리하여 18년이나 계속된 (1830-1848) “7 월 왕국” 으로 유명한 그의 군주정치가 시작된다. 그는 개정 입헌 군주법에 선서하며 루이-필립 1세, 프랑스 대중의 왕이 된다. 집권 초기의 경제적 번영은 곧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으로 바뀌어진다.

그의 선거법 개정 거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증가시켜 “반정부 집회 모임” 을 불러일으킨다. 파리에서 집회 모임의 금지는 결국 폭동으로 번지고 1848년 2월 24일 왕위를 포기하게 한다. 그는 1850년 망명지 영국에서 사망한다.



19세기 살롱 - 3층
압델카데르 홀



미нім(Minimes) 탑

압델 카데르와 알제리아 정복 시작

1827 년 봄, 알제르의 태수와 프랑스 영사 사이에 외교적인 갈등으로 섭정 정권과 프랑스 사이에 긴장 사태를 초래하여 1830 년 6 월 프랑스 함대들이 알제르 근처로 상륙하는 사건이 있었다. 항구 전지역에 걸쳐 프랑스 주둔 군들이 점령하였다. 오토만 술탄의 대변인인 알제르의 태수와 오란의 장관은 망명의 길을 떠났다.

오란 지역에서, 압델 카데르의 아버지는 정복에 대한 저항 운동의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아버지를 따라 1832 년 초에 압델 카데르는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4 세에 여러 부족 연맹의 우두머리가 되어 «왕» 칭호 (« 기사»)를 획득했다. 2 년만에 압델 카데르는 정치적 그리고 전략적 재능으로 저항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변신하였다.

오를레앙 왕자들의 참전

루이-필립 왕의 다섯 왕자들의 알제리아 전쟁 참전은 왕실의 위신을 공고히 하였다. 너무르 공작은 1837 년 9 월 13 일 콘스탄틴 점령에 참가한다. 왕세자, 오를레앙 공작은 1839 년 가을에 철문 협로(디반)를 통과했다.“ 젊은 오말 공작의 참전으로 프랑스군은 압델 카데르 왕의 이동 수도인 라 스말라를 1843 년 5 월 16 일 정복하였다. 오말 공작의 출중한 활약은 젊은 나이 (25 세) 에도 불구하고 1847 년 9 월에 알제리아의 총독으로 임명되게 하였다. 주영빌 왕자는, 해군 소장으로 임명되어 1844 년 탕제와 모가도르의 대공습을 지휘하였다. 몽쌍시에 공작은 비스크라 전투 (1844)와 카빌리아 대전 (1855) 에서 활약으로 빛을 내었다.

에미르 압델-카데르 왕의 앙브와즈 억류 (1848-1852)

15년에 걸친 프랑스 군에 대항한 힘든 전투를 끝낸 압델 카데르는 이슬람 땅에서 떠난다는 알제리아에 영원히 돌아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무기를 내려놓기로 결정한다. 알제리아의 총독, 오말 공작이 이 조건을 수용하여 1847 년 12 월 24 일 압델 카데르와 가족 및 친지들이 출발하였다.

그러나 파리 정부에서는 에미르에게 한 약속을 수용하지 않아 압델 카데르는 배가 툴롱항에 경유하는 동안 본인이 포로로 간주되는 것을 알게된다. 1848 년 2 월 24 일자 혁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운명은 변하지 않았다 : 에미르와 그 일행들은 뽀(Pau) 성에 갇혀있다가 1848 년 11 월 8 일 앙부와즈 왕궁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들의 체류는 4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 기간동안 에미르의 포로상태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여러 항의의 대상이 되었으며 압델 카데르를 석방하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형성되었다. 그 당시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왕자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852 년 10 월 16 일 앙부와즈에 에미르의 석방 명령을 서명하기 위해 도착하였다. 에미르는 석방 후 파리에 도착해 수많은 이들로 부터 존경과 호감을 받았으며 그 뒤 예정한대로 다마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토만 제국을 설립하기 위해 프랑스를 떠났다.

1860 년 7 월, 압델 카데르는 다마스 근처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는 수천명의 기독교 신자들을 용감하게 보호하였다. 이 관대한 처사는 전세계에 알려져 나폴레옹 3 세 황제는 레지옹 도뇌르의 최고 훈장을 에미르에게 수여했다. 에미르는 1865 년 8 월 29 일, 마지막으로 다시 앙부와즈에 돌아왔는데 모든 앙부와즈 주민들이 그를 축하했다.

미нім 탑의 지붕에서 투와르 강을 내려다 볼 수 있다. 1843년도에 여기에 파노라마 살롱 (오늘날 없어짐) 이 건축되어 루이-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808-1873)가 1852년 10월 16일 에미르 압델 카데르의 석방을 서명하러 왔을 때 이 살롱에서 그를 맞이하였었다. 이 탑의 상부는 19세기 말엽에 건축가 뤼프릭-로베르 (Ruprich-Robert)에 의해 완전 개조 되었다.

여기에 있는 계단으로 샤를르 8세 통치 때에 건축된 기마명 탑 경사길까지 내려 갈 수 있다.



방문 시작전에 오토리 옆에 유모차를 맡겼으면 이 계단 밑에서 찾을 수 있다.



기마명 탑 경사길

화염을 모면한 황제

이 나선식의 경사길은 시내에서 부터 왕 또는 황제의 말과 마차들이 성의 테라스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통로이다. 다른 기마명 탑인 으에르또(Heurtault) 탑을 통해 1539 년 프랑스와 1세의 초청을 받은 황제 샤를르 께트 (Charles-Quint)가 성에 도착한다. 그가 성에 도착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다 ; 햇불이 황제 행렬이 지나가는 벽 천 장식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화염을 모면한 황제는 전혀 문제없이 그 다음 날 플랑드르 방향으로 출발하여 여정을 계속하였다.

기마명 탑 경사길위로 오말 갤러리에 도착한다.

오말 (Aumale) 갤러리

이 갤러리는 1895년도 부터 성의 소유주인 루이-필립 왕의 다섯번 때 아들, 오말 공작 (1822-1897) 이름을 따서 지었다. 군인이자 정치가 였던 그는 또한 프랑스 연구소 (l'Institut de France) 주관아래 샹티이 (Chantilly) 성에 오늘 날 보관되어 있는 고문서와 예술 작품들을 수집을 시작할 수 있게한 위대한 예술 옹호자이기도 하였다.

르네상스시대에는, 이 갤러리는 앙리 2세왕이 거주하는 지금은 없어진 본궁 (오른 쪽), 그리고 그 자녀들이 거주하는 (왼쪽에 평행하는 궁)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정원으로도 갈 수 있었다.



정원

정원 예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15세기 말경에 만들어진 앙브와즈의 건물위에 설치된 정원인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나폴리 공화국을 일시 정복하였던 샤를르 8세가 본인이 본 경관에 감동받아 왕궁의 리모델링 계획안에 정원 설치를 포함시켰다. 샤를르 8세는 나폴리의 수도승 돔 파첼로 다 메르코글리아노 (Dom Pacello da Mercogliano)에게 정원 설치를 의뢰하는데 그는 새로운 별관들 바로 근처에 정원을 설계하였다. 설계의 컨셉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하고 쾌적하게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방문 코스는 다양한 식물과 풍부한 조류들을 주의깊게 관찰하도록 설계되었다.
(설명서 뒷면의 도면)

나폴리 테라스

미닝 탑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위치한 이 테라스에는 몇 년 전까지해도 그 길이 전체에 걸쳐 보리수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다. 이 때 정원 형태는 이태리 원정에서 돌아온 샤를르 8세의 소망에 따라 1496년도 성의 첫 번째 정원의 자취를 완전 사라지게 한 것이다. 돔 파첼로가 상상한 정원은 프랑스 르네상스 양식 정원의 원초가 되는 것으로 주위 경관에 오픈되어 있고 궁 내 방에서도 보이게 설계되었다.



소사나무 묘목들이 심어진 상부 테라스는 성 영지 북동쪽 성벽을 따라서 위치하고 있다. 성의 방어를 염두에 두어 만들어진 이 테라스는 전망대로 전환되어 밑으로 루이 12세 왕의 상징적인 동물 (도슴고치)의 조각으로 장식된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전망대의 위치는 동쪽 성벽을 넘어 큰 외호와 바깥 축대를 볼 수 있게 한다.

조경된 정원

강을 뒤로 하고 남쪽을 바라보면, 낭만적인 옛 정원의 여러 산책로들이 보인다. 녹색 떡갈나무, 회양목, 편백나무, 스타 재스민, 포도나무, 잔디, 제라늄과 카르동 (아티초크의 일종) 등의 식물들이 최근 몇 년에 걸쳐 산책로에 심어졌다.



정원

정원의 중앙 산책로가 기본이 되어 이차적 산책로들이 형성되어 있다, 둘로 포장된 산책로가 나무로 된 울타리문으로 표시된 역사적인 성 입구에서 본궁까지 인도한다. 정원 공원의 이 위치에서 주위를 살펴보면 성의 여러 연결된 요소들이 먼 경치에 어우러지는 파노라마 같은 느낌을 준다 (성당, 연못, 탑들의 지붕들 등등...)

남동 테라스에 웅장한 레바논 삼나무가 지배하는 동쪽 정원은 2005년 아티스트 라시드 코라이시 (Rachid Koraïchi)가 설계하였는데, 에미르 압델 카데르 (Abd-el-Kader) 을 따라와 앙브와즈 성에 머물다 사망한 추종자들을 기리고 있다. 기하학적으로 배치된 묘석들이 메카 성지를 향하는 그린 라인에 의해 균형이 깨어져 있다.

루리-필립 왕 시대에 식목한 웅장한 레바논 삼나무의 시원한 그늘아래 정원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연못이 있어서 싱그러운 공간을 제공한다. 관상학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이 없는 정원은 상상할 수가 없다.

오른 쪽에 성당 방향으로, 7 개의 미덕 정원이 가장자리에 뽕나무 화분들이 장식된 세 개의 테라스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은 없어진 같은 이름의 별관 자리이기도 하다. 뽕나무는 이 장소를 상징하는 나무 중의 하나이다. 1470 년 3 월 14 일 앙부와즈 왕궁에서 서명한 루이 11 세의 서신에 보면 투르 (Tours)에 실크 공방 설립을 명령하고 있다. 실크 공방들은 19세기 까지 루아르 계곡의 부를 대변하였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흉상

공원 아래쪽에, 성-폴로랑탱 성직자 성당 (11세기 로마식 건축물)이 세워졌던 자리이며 성에 묻히기를 소망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예전 무덤이 있었던 곳에 카라레의 대리석으로 앙리 데 보레알이 조각한 다 빈치의 흉상이 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첫 번째 무덤

1519년 4월 23일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공중인 기욤 부로에게 유언장을 구술한다 : «유언자는 앙브와즈의 성-폴로랑탱 성당 사제들이 본인의 관을 운반하여 성당안에 묻히고자 한다». 1519년 5월 2일 사망한 그는 이 성당에 매장되었다.

이 11세기 성당은 1806년과 1810년 사이에 철거되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흉상이 성의 공원내의 그 옛날 자리를 표시해 주고 있다). 1863년 프랑스 국립미술학교 감독관 아르센 우세이 (Arsène Houssaye)의 주도아래 발굴이 수행되었는데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화가들의 성인인 성-뤽(Saint-Luc) 이름의 흔적이 보이는 묘비 근처에 남은 뼈가 발견되었다. 이 때 수집된, 프랑스와 1세 시대의 이태리 은화, 프랑스 동화를 포함한 여러 데이터로 아르센 우세이는 발견된 잔골들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잔골들은 1874년 성 위베르 성당안으로 이장되었다.



안전을 위한 조치



감시 카메라



연소자들은 동반하는 성인들 책임하에 방문



성벽 주위 : 소란 금지; 올라가기 금지; 투사를 놓이는 주변 주민들에게 위험 초래



화재 대피 : 경보음과 경보등 ; 직원 지원

- 출구 1 : 낮에는 옛 마굿간 (부탁)과 으에르도 탑 이용

현지의 자연스러운 경사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오랑저리 (화장실 있음)로 가는 주 경사로를 통해서 옛 마굿간 (히스토패드© 카운터와 부탁)을 완전히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의 두 번째 기마병 탑, 으에르도 탑으로 도달하게되는데 이 탑에는 15세기 말 경의 멋진 « 장난스러운 » 장식이 있습니다. 기마병 경사로를 따라가면 시내 중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출구 2 : 마감 시간, 옛 마굿간 (부탁)의 문이 닫히고 나면



현지의 자연스러운 경사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오랑저리 (화장실 있음)로 가는 주 경사로로 갈 수 있고 그 다음 방문 시 들어온 블라종 갤러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블라종 갤러리

- 출구 3 (PMR) : 차량으로 도착하였으면 들어온대로 비공식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47 57 00 98

사진 소유권 :

© Erwan Fiquet : P1, P4(1), P19(1)

© RMN : P9(1), P11 (portraits), P12 (portraits)

© Musée de la Légion d'Honneur et des Ordres de Chevalerie : P2(1)

© Leonard de Serres : P2(2), P7(2), P19(2)

© FSL : P5, P7, P9(2,3), P10 (1,3,4), P11, P12(1), P13, P14, P15, P16, P18

© ADT Touraine JC Coutand : P6 ; P8 ; P17



산책로

출구

입구

가이드 그릴 방문 시작점

성 위베르 성당

본관 입구

르네상스 별관

방문 출구

오말 갤러리

나폴리 테라스

레오나를 다 빈치 흉상

레바논 삼나무

회양목 장식술

사자들 문

등쪽 정원

조경된 정원

고슴도치 문

샤를르 8세 별관

가르소네 탑

Histopad®

옛 마국간

티켓

정원

<sept vertus>

출구

오랑저리

WC

장애인 화장실

출구

이에르모 탑